

顔貌變形症 患者에 있어서 顎矯正 手術前 心理 評價에 關한 臨床的 研究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 외과학교실

양명철 · 진우정 · 신호근

A CLINICAL STUDY ON THE PREOPERA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OF THE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Myeong-Cheol Yang, D.D.S. Woo-Jeong Jin, D.D.S, Ph.D.

Hyo-Keun Shin, D.D.S, Ph.D.

Dep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need to assess preope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Fifty six pati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hey were investigated in the preoperative psychosocial aspects. Korean Version Eysenk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Korean Version Tennessee Self-Concept Scale were used for psychological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sex and age in the personality dimension, the self-concept scale, and the preoperative tests ($P > 0.05$).*
- 2. 37% of subjects showed phonetic problem, 60% masticatory problem and 56% social problem for facial deformity. The first choice was the face in the order of correction for mastication, phonation and face. And 83% of the subjects forecasted the change in their face after surgical correction, The answer was generally vague. 64% of the subjects expected their personality to become more lively as a result of their operation.*
- 3. Total positive self score and personal self score were less improved in the groups with high scores of toughmindness and neuroticism ($P < 0.05$), degree of suffering was increased in the group with high scores of neuroticism ($P < 0.05$).*
- 4. Degree of subjective deformity, self-consciousness, and degree of dissimilarity were more improved in the group of intravers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gree of dissimilarity in the group with high score of toughmindness ($r = -.64, P < 0.05$).*
- 5.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forecast of change in the groups with high score in extraversion ($r = .59, P < 0.01$) and with low score in neuroticism ($r = -.39, P < 0.05$).*

I. 서 론

안모변형증 환자는 외상 혹은 중앙과 같이 기능회복이나 생명보존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에는 관계없이 수술이 절대 적용이 되는 질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치료의 필연성이나 근본적 치치는 환자 자신의 보다 나아지고 싶은 확고한 의지를 구할 수 밖에 없다¹⁰⁾. 따라서 안모변형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의 의지 확인과 동시에 그 의지의 배경이 되는 심리 정신상태 혹은 성격 등을 포함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자는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라 개인적 문화적 산물이며 또한 사고, 감정, 야망, 공포, 기억, 꿈, 가족, 친구, 직장동료, 그리고 경쟁자를 가진 인간이다. 안모의 심미적 변화는 그 사람의 행동, 성격, 때로는 기본적인 재능과 능력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고 환자의 성격특성이 수술결과의 기능적, 심미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⁵⁾, 환자의 심리요인, 성격, 안모의 심미성, 수술결과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8,9)}가 있었으나 이론적 근거의 부족,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문화적 가치의 변화, 불명확한 가치기준, 불충분한 임상연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 보고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의 많은 연구 노력에 의해 악교정 수술에 관계된 심리평가 방법이 많이 개발 고안되어 임상연구에 응용되어 왔는데, 그 평가방법으로 앙케이트 조사¹⁰⁾, SD법¹¹⁾, Y-G 성격검사¹²⁾, CMI(Cornell Medical Index)¹³⁾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은 심리요인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중심 내용으로 악교정 환자의 사고와 행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접조사 방법¹⁴⁾이 있다.

수술동기, 환자의 술전 준비와 수술목적에 대한 이해, 수술전의 환자의 성격 특성, 상호관계를 평가하여 수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요인을 찾아냄으로서 환자의 적응 능력을 예견하는 지표 설정의 필요성^{17, 18, 20, 21, 22)}이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악교정 수술전 환자의 성격차원, 자아개념, 술전항목조사를 평가하여 술전의 안모변형증 수술환자의 생각방식이나 행동을 포함한 인간상을 전체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술전 안모변형증환자의 이해와 술후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연구하였던 바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1년부터 약 2년간 전북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에 안모변형증으로 내원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 가운데 순열 및 구개열 환자를 제외한 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검자의 조사는 입원실에서 수술 2~3일 전에 시행되었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또한 안모 변형증의 진단명에 의한 피검자의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피검자의 심리검사 목적으로 "성격차원검사", "자아개념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술전항목조사는 24문항으로 된 질문지로

Table 1. Sampl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
Sex		
Male	21	38
Female	35	62
Age(X=20.5)		
10yrs	22	39
20yrs	34	61
Occupation		
Student	47	84
High	(22)	(39)
College	(25)	(45)
Skilled Laborer	9	16

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by Facial Deformity.

Impression	Number	Percent
Total	56	100
Mn. Prognathism	44	79
Mn. Retrognathism	5	9
Facial Asymmetry	3	5
Mx. Protrusion	2	4
Bimax' Protrusion	2	4

0에서 12까지 차등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를 수술 2~3일 전에 입원실에서 나누어 주고 진실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격차원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두군과 자아개념 및 술전항목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1) 성격차원검사

아이젠크 성격검사인 EPQ(Eysenk Persona-

lity Questionnaire)²⁰를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알맞게 표준화한 것으로 Korean Version Eysenk Personality Questionnaire이다. EPQ는 종래의 성격검사와 같이 단순한 성격 특질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차원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모두 7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강인성차원, 외·내향성 차원, 정서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표준화 집단(표 3)에서 유출된 각 성격차원검사 척도를 기준으로 피검자를 각 성격차원의 경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4).

2) 자아개념 검사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Fitts(1965)가 제작한 Tennessee Self-concept Scale을 정원식(1968)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알맞게 표준화하여 만든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표 5). 본 자아개념검사는 한 개인이 그가 처해 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기자신 및 그의 주위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Table 3. Personality Dimension in the standard population of Korean* (M±SD).

Personality Dimension	T	EI	N
Male(n=661)	2.55± 2.30	11.40± 4.28	13.36± 4.37
Female(n=539)	2.42± 1.97	10.59± 4.20	15.33± 3.88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 : sourced by H. S. Lee, 1985.

Table 4. Grouping of patients by scores measured Personality Dimension(M±SD).

Personality Dimension	T	EI	N
High	3.89± 1.08 (n=11)	15.48± 2.43 (n=19)	18.14± 2.62 (n=28)
Low	0.84± 0.74 (n=45)	7.27± 2.87 (n=37)	10.96± 2.79 (n=28)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High : High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Low : Low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Table 5. Self-Concept Scale in the standard population of Korean* (M±SD).

T. P.	S. C.	A.	C.	E.
299.85± 31.47	31.88± 5.23	60.62± 9.15	57.19± 8.56	57.06± 7.58

T. P. : Total Positive Self Score, S. C. : Self Criticism

A : Physical Self Score, C : Personal Self Score,

E : Social Self Score, * : sourced by Koren Testing Center, Y. S.

Jenog. 1968

자기의 신체사항, 가족사항, 성격적인 면, 도덕적인 관념, 그리고 대인관계의 5가지 외적 측면에서 그 개인의 동일성, 자아의 수용 및 만족 그리고 외적행동의 적극성과 소극성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III. 연구성적

피검자를 집단으로 분류한 이들 집단과 술전조사항목 및 자아개념과의 상호관계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성격차원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술전조사항목 자아개념측정 점수와의 분석결과에서 남녀간, 10대와 20대에서 각각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Student t-test, P>0.05).

2. 안모변형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국민학교 13%, 중학교 33%, 고등학교 29%, 대학교 25%였다. 저작장애 60%, 발음장애 37%, 직업선택시 안모에 대한 고려는 5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는 56%였으며, 안모변형증환자의 83%에서 성격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적극성의 향상을 든자가 64%로 많았다. 저작·발음·용모중 개선하고 싶은 것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 용모-발음-저작이 40%, 용모-저작-발음이 18%, 발음-용모-저작이 17% 보였으며, 용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표 6).

3. 성격차원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자아개념의 점수와의 분석결과(표 7)에서 강인성 차원(Student t-test, P<0.01), 외향성-내향성 차원(Student t-test, P<0.05), 그리고 정서성 차원(Student t-test, P<0.01)의 모든 집단에서 총자아 긍정 점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또한 정서성차원의 두집단에서 총자아긍정점수, 신체적 자아 점수, 그리고 신체적 자아 점수에서는 통계적 유의성(Student t-test, P<0.01)있었고, 자아 평가 점수와 사회적 자아점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Student t-test, P<0.05)이 있었다. 강인성 척도의 두 집단에서 신체적 자아 점수와 성격적 자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Student t-test, P<0.05)이 있었다. 외향성-내향성 척도에서 사회적 자아 점수와 통계적 유의성(Student t-test, P<0.01)이 있었다.

4. 성격차원과 술전 조사 항목의 분석 결과(표 8)에서 외향성-내향성 척도의 두 집단에서 주관적 안모변형정도, 타인의 시선 의식정도, 그리고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있었다. 정서성 척도에서 안모변형에 대한 고민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었다.

5. 성격차원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표 9)에 강인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성격적 자아 점수와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었다. 외향성-내향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총자아긍정점수와 성격적 자아 점수의 통계적

Table 6. Results of Preoperative Tests

Preoperative Test	Percent
Time of consciousness for facial deformity	
1) Elementary school	13
2) Middle school	33
3) High school	29
4) College	25
Masticatory Problem	60
Phonetic Problem	37
Social problem for facial deformity	56
Consideration of face to choose occupation	49
Postoperative change(activity)	83(64)
Order of correction	
1) Face-Phonetic-Mastcation	40
2) Face-Mastcation-Phonetic	18
3) Phonetic-Face-Mastcation	17

Table 7. Self-Concept Scale in the Two groups of Peresonality Dimension (M± SD).

Personality Dimension	Self-Concept Scale				
	TP	SC	A	C	E
T Low	315.18**	29.42	64.88*	61.44*	58.93
	± 20.70	± 4.42	± 6.41	± 6.86	± 5.45
High	291.09**	31.81	58.63*	55.72*	53.82
	± 30.76	± 5.42	± 5.52	± 8.52	± 9.71
EI Low	305.08*	29.81	62.78	59.54	55.65**
	± 23.85	± 4.62	± 6.70	± 7.38	± 5.87
High	320.89*	30.05	65.38	61.84*	62.37**
	± 23.36	± 4.92	± 6.50	± 7.65	± 6.10
N Low	322.61**	28.39*	65.93**	63.68**	60.14*
	± 18.16	± 5.31	± 5.61	± 6.21	± 6.29
High	298.29**	31.39*	61.39**	56.96**	55.71*
	± 24.53	± 3.41	± 4.99	± 7.23	± 6.49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0.05)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0.01)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Low : Low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High : High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TP : Total Positive Self Score, SC : Self Criticism

A : Physical Self Score, C : Personal Self Score, E : Social Self Score

Table 8. Preoperative Tests in the Two groups of personality Dimension (M±SD).

Personality Dimension	Preoperative Tests				
	DSD	DS	SC	DD	FC
T Low	7.73±2.88	7.02±2.97	7.11±2.81	7.64±3.05	6.84±4.23
T High	7.64±2.80	6.91±3.62	8.36±2.16	8.36±2.80	5.82±3.74
EI Low	8.43±2.79**	7.57±2.79	8.32±2.19**	8.54±2.85**	6.16±4.07
EI High	6.32±2.43**	6.89±3.36	5.47±2.74**	6.32±2.77**	7.58±4.19
N Low	7.86±2.55	6.14±3.35*	6.71±3.09	7.57±3.33	7.14±4.12
N High	7.57±3.14	7.86±2.55*	8.00±2.17	8.00±2.67	6.14±4.14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0.05)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0.01)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Low : Low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High : High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DSD : Degree of subjective deformity, DS : Degree of suffering

SC : Self-Consciousness, DD : Degree of dissimilarity, FC : Forecast of change

Table 9.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Dimension and Self-Concept Scale.

Personality Dimension	Self-Concept Scale				
	TP	SC	A	C	E
T Low	-.24	.10	.05	-.37*	-.02
T High	-.03	.25	-.01	-.08	-.01
EI Low	.36*	.07	.13	.33*	.32
EI High	.16	.36	.45	-.03	.23
N Low	-.22	-.06	-.13	-.33	-.36
N High	-.39*	-.23	-.28	-.31	-.39*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0.05)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Low : Low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High : High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TP : Total Positive Self Score SC : Self Criticism

A : Physical Self Score, C : Personal Self Score, E : Social Self Score

유의성(P<0.05)이 있었다. 정서성이 높은 집단에서 총자아 긍정점수와 사회적 자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었다.

6. 성격차원과 설문조사항목의 상관관계수에 관한 분석결과(표 10)에서 강인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타인의식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는 반면, 강인성 차원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었다. 외향성-내향성차원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안모변형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0.05)이 있는 반면, 높

Table 10.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Dimension and Preoperative Tests.

Personality Dimension	Preoperative Tests				
	DSD	DS	SC	DD	FC
T Low	-.02	.22	.33*	.22	-.09
T High	.55	.25	-.48	-.64*	-.31
EI Low	-.33*	-.10	-.19	-.24	.32
EI High	.22	.17	-.18	.09	.59**
N Low	.42	.47*	.59**	.51**	-.39*
N High	.12	.11	-.03	.04**	-.36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 < 0.05$)

** : Significant (Student t-test, $P < 0.01$)

T : Toughmindness, EI : Extraversion-Intraversion, N : Neuroticism

Low : Low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High : Higher score group than mean value of T, EI, N.

DSD : Degree of subjective deformity, DS : Degree of suffering

SC : Self-consciousness, DD : Degree of dissimilarity, FC : Forecast of chage

은 집단에서는 슬후 변화량 예측과의 통계적 유의성($P < 0.01$)이 있었다. 정서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안모에 대한 고민정도($P < 0.05$), 타인 시선 의식 정도($P < 0.01$),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P < 0.01$), 그리고 슬후 변화량 예측($P < 0.05$)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IV. 총괄 및 고안

수술에 관한 심리 분석학적 관찰에 의하면 수술에 대한 심리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상태, 환자의 신경증, 술자와의 관계, 전신마취와 수술자체에 대한 공포감, 수술의 의미, 슬후반응들이며 대부분의 외과적수술은 환자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외상 경험³⁾이기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심리반응^{2,4,6)}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Kiyak(1981)¹⁰⁾은 근대 남성애 있어서도 Narcicism이 서서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남성 악교정 환자간에 있어서 심미적인 수술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Lee³⁰⁾(1991)는 악교정 수술결과에 대한 슬후

자아개념 측정 점수와의 분석결과에서 10대보다 20대에서, 여자보다 남자에서 신체적 자아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 연령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외향성-내향성 차원이 높은 집단과 정서성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수술 결과에 만족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외향성-내향성 차원이 높은 집단과 정서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수술 변화에 대한 기대와 상호관련성이 있었다.

안모변형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국민학교 13%, 중학교 33%, 고등학교 29% 그리고 대학교 25%이었다. 사춘기는 어린이의 신체에서 성인의 신체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며 어린이는 자기 image의 변모에 직면하는 것과 동시에 특유의 자의식이 호발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환자가 자기의 안모 변형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춘기 특유의 심성에 크게 영향받는다 생각된다.

저작장애 60%, 발음장애 37%, 직업선택시 안모에 대한 고려는 5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작·발음·용모중 개선하고 싶은 것의 순서를 묻은 질문에는 용모-발음-저작이 40

%, 용모-조작-발음이 18%, 발음-용모-저작이 17% 보였으며, 용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안모변형증환자의 많은 사람들이 심미장애를 호소하는 것은 이미 확인했지만 안모변형증환자의 심리면의 주된 검토과제는 안모변형증환자의 성격이나 행동, 혹은 심리 정신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는데에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안모변형증환자는 자의식에 빠지기 쉽고 사춘기 무렵부터 자각되는 일이 많다는 데서 그것이 환자의 성격형성이나 정신면 혹은 행동중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³⁹⁾. 본 연구에서도 50% 이상이 안모변형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열등감이나 수치심에 관련된 심리적 정신적인 경우가 많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쉬운 사춘기에 있어서 안모변형증환자의 음성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진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안모변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환자가 49%였으며, 안모변형증이 없으면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환자가 64%이었다.

이와같이 안모변형은 여러가지 형태로 환자의 생활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왜곡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검사결과로서 대인관계의 이상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안모변형증환자에서 자아개념검사의 사회자아점수가 한국인의 평균과 차이가 없는 것과는 일치한다.

또한 본 검사에서 주관적 안모변형량 정도를 묻는 질문에 중간이상이라고 대답한 자가 70% 이상이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60% 이상이었다. 용모 때문에 고민하는가의 질문에는 60% 이상 "그렇다"라고 하였다. 또한 37%에서 발음장애와 60%에서 저작장애를 갖는다고 하였다. 60% 이상의 높은 저작장애를 호소하는 이유는 술전에 교정장치물을 오랫동안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저작, 발음, 용모 중에서 치료하고 싶은 것의 순서는 남녀 모두에서 용모-발음-저작, 용모-저작-발음, 발음-용모-저작순이었으며, 이것은 남녀 모두에서 용모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고, Kiyak(1981)¹⁹⁾은 나르시즘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이 남성 악교정 환자간에서 심미적 수술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수술의 결과 안모변형의 개선에 수반해서 환자의 성격 혹은 행동등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모변형증환자의 83%에서 성격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적극성의 향상을 든 자가 많으며, 여기에 안모변형증환자가 수술에서 찾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내지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악교정수술에 마술적인 구원 혹은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수술에 거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 심리적 예후의 불량함을 Peterson²⁰⁾은 지적하고 있다 山田²¹⁾은 CMI에 의한 안모변형증환자의 심신의학적 검사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악교정수술을 희망하는 환자의 전원이 신경증 경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차원 검사에서 신경증 경향을 보이는 자는 전체 56명중 T점수가 높은 11명에 불과 했으며 45명은 T점수가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그들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신경증 경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안면 부위는 성격²²⁾, 자아개념²³⁾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인자이며, 안모의 비정상적인 특징이 소아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연구²⁴⁾에서 변형된 외모로 인해 자신이 타인에게 있어서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소아는 심리적 억압을 받게 되며 정형화된 성격특성²⁵⁾을 띠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인종, 지형, 사회,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안모변형증의 소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점점 더 성장해가면서 안모의 특징과 표정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자아개념의 많은 부분이 형성²⁶⁾되며, 신체의 호감도는 자아동일성과 자긍심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안모의 외모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안모 변형증 환자는 눈, 코, 입술, 경부의 자가

평가에서 긍정적인 신체의 괴력과 높은 자긍심을 갖고있고, 턱이나 안모의 외형과 같은 특징적인 안모에서만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아와 높은 자아개념이 있음을 의미¹⁶⁾하며 수술에 의한 안모의 변화 즉, 심미성을 증진시킬 때, 자기비하적인 행동을 개선시키고, 신체적 자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²⁰⁾을 나타낸다.

악교정 수술을 받고자하는 동기 요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서 저작, 언어 그리고 하악 운동과 같은 기능적 이유, 심미적 이유,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와 같은 사회적 이유, 그리고 전문의사의 권고에 의한 동기유발이 있을 수 있다.

외과적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전 심리 성격에 관한 연구²¹⁾에서 Meyer²⁷⁾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30명의 여성에서 약 50%가 정신병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분열증적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존 홉킨즈 대학의 연구²⁸⁾에 의하면 성형수술 환자의 약 72%가 정신병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 약 60%가량이 우울증, 낮은 자존심, 그리고 히스테릭한 성격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유방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심미평가에서 그들은 부족감과 수취심의 보상 목적으로 수술을 택했으며, 가슴이 적은 여성에서 더 신경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에 반하여 Edgell의 연구²⁹⁾에 의하면 비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남성이 같은 집단의 여성보다 더 큰 심리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pley³⁰⁾에 의하면 여성환자의 심리검사서 보통여성과 똑같은 심리안정을 나타냈으나 신체의 매력, 옷매무새에 더 적극적인 반응²⁷⁾을 보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형수술의 보편화로 인해 안모의 변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정상적인 성격특성을 갖게 되었다. 수술전에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안모변형증환자의 자존심, 신체의 호감도, 신경증 등을 평가한 결과 남녀간,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심리요인으로 성격특성과 심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시빌아이젠크²²⁾, 분트³⁰⁾, 움³³⁾ 그리고 크레취머³⁴⁾의 현대차원론적 성격분류의 이론을 발전시켜 경험적

자료로서 확립한 차원적 성격유형 즉 강인성 차원, 외향성-내향성 차원, 그리고 신경증적 혹은 정서성 차원을 성격특성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강인성 차원과 정서성차원의 경향이 높은 집단, 외향성 차원의 집단에서 총자아 긍정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P < 0.05$) 이는 자아동일성, 자기만족과 신체적, 성격적, 도덕적,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자아에서 상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각각의 성격차원이 갖는 특징 즉, 행동적이며 자가중심적인 강인성 차원, 사교적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외향성 차원, 그리고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지나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원점으로 회복되지 않는 강인성 차원과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분의 변화가 별로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성격특성을 갖는 내향적인 성격차원의 집단이 신체적, 사회적 자아와 상관계수($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차원과 술전 조사 항목의 분석 결과에서 외향성-내향성 척도의 두 집단에서 주관적 안모변형정도, 타인의 시선 의식정도, 그리고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 < 0.01$)이 있었다. 정서성 척도에서 안모변형에 대한 고민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 < 0.05$)이 있었다. 성격차원과 술전조사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결과에서 강인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타인의식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 < 0.05$)이 있는 반면, 강인성 차원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 < 0.05$)이 있었다. 외향성-내향성차원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안모 변형 정도와의 통계적 유의성($P < 0.05$)이 있는 반면, 높은 집단에서는 술후 변화량 예측과의 통계적 유의성($P < 0.01$)이 있었다. 정서성 차원이 낮은 집단에서 안모에 대한 고민정도($P < 0.05$), 타인시선의 의식 정도($P < 0.01$), 타인과의 차이점 정도($P < 0.01$), 그리고 술후 변화량 예측($P < 0.05$)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악교정수술을 받을 환자의 심리검사를 통해 술자는 술전에 안모변형증 환자의 생각 방식이나 심리반응 및 행동을 포함한 인간상을 전체적이면서 객관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안모변

형증환자의 치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악교정수술을 희망하는 안모변형증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성격 차원검사, 자아개념검사, 술전 항목 조사를 시행하여 상관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아개념검사, 성격차원검사, 술전항목조사의 성별, 연령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인정되지 않았다($P < 0.05$).
2. 술전항목조사에서 발음장애 37%, 저작장애 60% 그리고 용모에 대한 불만이 56%였는데, 그 중에서 용모가 남녀 모두에서 최대의 개선 희망 사항이었고, 83%에서 수술후 안모의 개선을 기대했으며, 64%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정서성, 강인성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총자아긍정점수와 성격적자아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 < 0.05$), 정서성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하여 안모변형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더 높았다($P < 0.05$).
4. 내향성 집단에서 외향성 집단보다 주관적 안모변형정도, 타인의식정도, 그리고 타인과 차이정도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내향성 집단에서 총자아긍정점수와 성격적 자아점수와외 상호관련성이 있었다($r = -.64, P < 0.05$).
5. 술후 변화에 대한 기대는 외향성 집단($r = .59, P < 0.01$)과 정서성이 낮은 집단($r = -.39, P < 0.05$)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었다.

참고문헌

1. Jensen, S. H., Carson, F. : The psychological dimens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 Oral. Sur., 36 : 447-453, 1978.
2. Flannary, C. M., Alexander, F. M. : Patients perceptions of orthognathic surgery,

Am. J. Orthod., 88 : 137-145, 1985.

3. Boyd, I., Yeager, M. : Personality styles in the postoperative course Psychosom. Med., 35 : 23-40, 1973.
4. Nakamura, H., Yamada, E., Seto, K. : The psychological study, through an interview method, of prognathism patients seeking surgical correction II. Postoperative investigation.
5. Peterson, L. J. and Topazian, R. G. : The preoperative interview and psychological evaluation of the orthognathic surgery patient. J Oral Surg 32 : 583 Aug 1974.
6. Peterson, L. J., Topazian, R. G. :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corrective maxillary and midfacial surgery, J. Oral. Surg., 34 : 157164, 1976.
7. Reich, J. : The surgery of appearance : Psychological and related aspects. Med. J Aust 2 : 5 July 5, 1969.
8. Huton, C. E. : Patient's evaluation of surgical correction of prognathism : Survery of 32 patients, J. Oral Surg., 25 : 225-228, 1969.
9. Crowell, N. T., Saxima, M. J., Elden, S. T. : Surgery of patient's attitude after surgical correction of prognathism. J. Oral Surg. 28 : 818-822, 1970.
10. 山田長信 : 下顎前突症患者の心理的行動 Patternに関する研究-Enquete調査-第1編 術前術後の自己評價の變化. 日口外誌 20 : 446, 1974
11. 深谷昌彦, 高井克憲, 他 : 下顎前突症患者の手術前後のおける顔貌の手かかりとする像の變化. 日口外誌. 20 : 446, 1974.
12. 山田長信 : 下顎前突症患者の性格と手術に對する心理的反應-Y-G性格にする-日口外誌. 30 : 167, 1984.
13. 山田長信 : 下顎前突症患者の心理醫學的檢討-Cornell Medical Indexによる-日口外誌. 32 : 584, 1986.
14. Nakamura, H., Yamada, E., Seto, K. : The

- psychological study, through an interview method, of prognathism patients seeking surgical correction I. Preoperative investigation.
15. Kiyak, H. A., Hohl, T., et al. : Sex differences in motives for and outcomes of orthognathic surgery, *J. Oral and Maxillo. Fac. Surg.*, 39 : 757-764, 1981.
 16. Kiyak, H. A., McNeill, G. W. et al. : Predicting psychologic response to orthognathic surgery, *J. Oral and Maxillo. Fac Surg*, 40 : 150-155, 1982.
 17. Tedesco, L. A., Albino, J. E., et al.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orthognathic locus of control scale, *Am. J. Orthod.*, 88 : 396-401.
 18. Flannary, C. M., Alexander, J. M. : Patient response to the orthognathic surgical experience : Factors leading fto dissatisfaction, *J. Oral and Maxillo. Fac. Surg.*, 41 : 770-774, 1983.
 19. Reich, J. :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of esthetic plastic surgery, *plastic Reconstr. Surg.*, 55 : 5-13, 1975.
 20. Kiyak, H. A., West, R. A., et al. : Psychologic changes in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 A 24-month follow up. *J. Oral and MaxilloFacSur* 42 : 506-512, 1984.
 21. Kiyak, H. A., McNeill, R. W., et al. : The emotional impact of orthognathic surgery and conventional orthodontics, *Am. J. Orthod.*, 88 : 224-234, 1985.
 22. Kiyak, H. A., West, R. A., et al.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 and sequelae of surgical and conventional orthodontics, *Am. J. Orthod* 89 : 383-392, 1986.
 23. Eysenck, H. J., Eysenck, S. B. G. :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San Diego, 1968, EDITS.
 24. Hyun Soo, L : A study on factor structure of personality dimension *The journal of Chung Ang University* 27 : 11-142, 1983.
 25. Knorr, N. J., Hoopes, J. E. : Psychiatric-surgical approach to adoloescent disturbances in self image. *Plast Reconstr Surg* 41 : 248, 1968.
 26. Quellette, P. L. : Psychological ramifications of facial changes in relation to orthodontic treatment and orthognathic surgery. *J. Oral Surg* 36 : 787-79, 1978.
 27. Meyer, E., Jacobson, W. E., Edgerton, M. T. : Motivational patterns in patients seeking elective plastic surgery. *Psychosom Med* 32 : 193, 1960.
 28. Edgerton, M. T., Jacobson, W. E. : Surgical psychiatric study of patients seeking plastic surgery : 98 consequent with a minimal deformity deformity. *Br. J Plast Surg* 13 : 136-145, 1960.
 29. Edgell, P. G. : A Psychiatrist joins a surgery of appearance symposium : A personal pint of view. *J Otolaryngol* 2 : 72-77, 1973.
 30. Shipley, R. H.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women seeking breast augmentation-comparison to small-busted and average-busted controls. *Plas Reconstr Surg* 50 : 369-376, 1977.
 31. Eysenck, H. J. & Eysenck, S. B. G. *Psychoticism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London : HODder & Stoughton, 1976.
 32. Wundt, W. : *Grundzuger der Bhiysiologischen Psychologie* leipzig Barth, 1903.
 33. Jung, C. G : *Psychological Type*. New York : Harwurt Brace, 1924.
 34. Kretschmer, E. : *Physique and character* : Harwurt Brace, 1925.
 35. Hillerstrom, K., Sorensen, S. :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patients with malformation of the jaws : Twelve months after surgery. *Scand J Plast Reconstr*

- Surg 5 : 34-40, 1971.
36. Lewis, C., Lavell, S., Simpson, M. : Patient selec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Clin Plast Surg 10 : 321-329, 1983.
 37. Straith, C. L., DeKeine, E. H. : Plastic surgery in children :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eformity. JAMA 111 : 2364 Dec 24, 1938.
 38. Macgregor, F. D. : Facial disfigurement and problems of employment : Some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Facial Education, and Welfare, 1963.
 39. 이국엽, 진우정 : 안모변형증환자에 있어서 악교정 수술후 심리검사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임상적 연구. 전북치대 논문집 9 : 341-352, 1991.